

## 서양 고대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에 미친 영향

양 문 흄\*

### I

위의 시기에서 서양 고대 철학 분야는 전반적으로 말하면 본격적인 활동기라기보다는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초창기였다고 말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 분야에서 본격적 학문 활동을 하는 학자들은 아주 제한된 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의 활동은 기록상으로는 1930년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1931년 柳瀞基 님이 『新生』지에 「쏘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플라톤의 같은 이름의 대화편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초역하고 있고, 같은 해에 대화편 크리تون을 「獄中の 쏘크라테스」라는 제목으로 초역하고 있다. 그리고 1932년에는 池昌夏 님이 플라톤의 저서 프로타고라스 편을 「쏘크라테스의 道德論」이라는 이름으로 『新生』지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초역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申南澈 님의 논문 「〈헤라클레이토스〉의 斷片語」가 1933년 『哲學』첫 호에 실리며, 1949년 金保謙 님이 서울대에서 플라톤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는다. 60-80년에 많은 활동을 하는 趙要翰 님도 1957년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제목은 「회랍 철학의起源에 있어서의 東方의 영향」이었다.

趙要翰 선생은 1974년 崇田大에서 「아리스토텔레스 哲學에 대한 解釋上の 問題」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학위를 받았다. 고대 철학 분야에서 최초로 학위를 받은 분은 卡

\* 동국대 철학과 교수

圭龍 님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분은 延世大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석사 과정 철학과에서 공부하다가 프랑스에 유학하였고, 1970년 프랑스 Toulouse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의 학위 논문은 비교 철학적 성격의 것인데, “*Tao et Logos: Un essai sur la structure de la pensée philosophique dans le Taoïsme primitive et chez les présocratiques*”이다. 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卞 박사는 귀국하여 “*La structure de la Pensée et le Concept du Logos chez Heraclite*”을 『哲學』, (1971)에 발표하였다.

60~80년의 시기에 들어서면 석사 학위 논문들을 포함한 전문적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많은 논문들이 『哲學』, 『哲學研究』 및 대학 학술지를 포함한 각종 전문지들, 그리고 회합 논문집을 빌어 발표된다.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들을 플라톤에 관한 것,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것 및 기타로 분류해도 좋다면 석사학위들을 포함해서 플라톤에 관한 것이 대략 50여편,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것이 대략 30편, 기타가 대략 25편이다. 번역물로서는 1947년 『소크라테스의 辨明』이 金恩兩 님의 번역으로 처음 나온다. 이어 1959년 『잔치』가 趙宇鉉님의 번역으로 나오며, 60~80년대에서 들어와서도 플라톤의 같은 이름의 작품들과 『국가』가 여러 편 출판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1973년에는 비전문가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中央大의 崔旼洪 교수에 의해 『플라톤全集』이 출간된다.

석사 학위 논문들은 플라톤에 관한 것이 12편,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것이 9편, 기타가 6편이다. 이 시기에 고대 철학 분야의 석사들을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 14명, 경북대 3명, 연세대 2명, 중앙대 2명, 동국대 2명, 건국대 2명, 고려대 1명, 숭전대 1명 등이다. 서울대의 배출수가 압도적이고, 반면에 사립 명문 대학들에 의한 배출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연세대에서 朴煥植님이 1960년 「플라톤의 이데아 論」으로 조우현 교수의 지도 아래 석사학위를 받으며, 이어 「초기 그리스의 철인들의 靈魂觀」(연세대 『인문과학』, 1963), 「플라톤의 Eros에 관한 연구」(연세대 『인문과학』, 1966), 「Aristoteles

에 있어서 自然의 개념- Descartes의 그것과 대비해서』(『동서철학』, 1975)를 발표한다. 고려대에는 그리스어 원전을 통해 고대 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시던 孫明鉉 선생이 계셨으나 특별한 연구성과를 추적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서울대의 경우 故 朴鐘鴻 교수와 故 朴洪奎 교수 가 고대 철학 전공자들을 배출하였는데, 특히 故 朴洪奎 교수 (1919-1994)의 힘이 컸다. 이 분야의 전공자인 박홍규 님이 철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석사 학위 배출의 수는 많이 증가한다.

박홍규 교수와 비슷한 시기에 金奎榮 교수와 尹明老 교수가 고전 철학에 관심을 보여 논문을 남기고 있다. 김규영 교수는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64년 「아리스토텔레스의 時間觀」을 동국대 논문집에, 1975년에는 「Plotinos의 時間論」을 『哲學研究』지에 발표한다. 그는 ‘시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으로 이후 Bergson, Kant, Husserl 을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의 시간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 윤명로 교수는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68년 동국대 논문집에 「Aristoteles에 있어서의 ‘分析論 後書’의 位置와 論證 思想」이라는 논문을 싣는다. 고대 철학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 분야의 번역물과 논문들을 관심있게 내놓은 분으로서 崇田大 崔明官 교수가 있다. 그는 『饗宴』이라는 제목의 플라톤의 작품을 출판하고(1966), 「잘 산다」는 것의 의미: 소크라테스적 對話를 중심으로』(『송전대 논문집』, 1971)와 「옳은 나라: 플라톤의 『국가』를 중심으로』(『哲學研究』, 1971)를 발표한다. (이처럼 崇田大 철학과에서는 조요한 교수와 최명관 교수가 고대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외국에서 고대 철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논문을 발표한 분은 변규룡 박사 외에 Wien 대학교에서 연구한 鄭恩順 님이 있다. 이 분은 『철학 연구』(1975, 8집)에 “Eudaimonia-Begriff bei Aristoteles durch seine Moralschriften”을 그리고 『철학』(1976, 10집)에 「Aristoteles의 철학적 관점과 그의 神觀」을 발표한다.

60-80년 사이에 고전 철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한 분들을 앞서 언급한 朴洪奎 교수, 趙要翰 교수, 그리고 朴琮炫 교수 세

분일 것이다. 이 분들은 고전 철학 분야의 논문 발표에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양성에서도 혁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의 학문적 활동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수용사를 쓰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특히 박홍규 님은 우리나라의 고대 철학 수용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분이다. 그는 1919년 전남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광주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다가 서울의 중앙중학교로 전학한다. 4학년 때 (1937년) 일본 와세다 대학 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한다. 1940년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이듬해 다시 같은 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다. 졸업할 때까지 칸트, 헤겔, 하이데거, 앤스페스, 하르트만을 포함한 철학자들에 관심을 가졌고,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 사이에 따로 ‘아테네 프랑세’에서 불란서어를 공부하였고, 상지대학 전수과 독어과에서 독일어를 2년 공부한다. ‘아테네 프랑세’에서는 약 3년반 동안 라틴어와 희랍어를 공부한다. 1946년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전임강사에 부임한다.

이 분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학문과 후진 양성에 바친다. 재직 기간 35년 동안 행정직이라고는 맡는 일 없이 대학원 학생들과 고대 철학의 고전들을 읽었다. 60-80년 사이에 읽은 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에 소개될 석사학위 목록표가 말해주고 있다. 선생은 건강이 허락하면 쉬지 않고 방학 때도 읽었다. 이렇게 강행하는 배경에는 논문을 쓰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선생은 논문을 쓰려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고전 희랍어를 익힐 것을 요구하였다. 논문 대상으로 삼는 고전을 숙독하지 않고 논문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자들이 해당 고전을 숙독할 수 있도록 선생 자신이 함께 읽어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선생은 고전으로 인정되는 주석서만을 참고로 하고 다른 책들은 가능하면 읽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선생은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는 탓에 정작 개학이 되면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때도 가끔 있었다. 이렇게 되면 강의는 방학 때로 미뤄진다.

선생은 대학 재직 중에 휴가를 내어 쉬는 일도 없었다. 이것은 선생의 탐구 정신과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희생 정신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인께서는 가족들보다도 제자들을 더 생각한다고 불평하기도 하였다. 가족과 함께 쉬러 가거나 여행을 하는 일도 없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선생은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없었다. 선생이 양성한 제자들은 80년 경부터 우리 나라의 서양 고대 철학계의 활동을 상당 부분 주도한다. 그가 배출한 제자들과 석사 학위 논문들을 소개함은 당시의 선생의 학문적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앞으로의 학계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소개하기로 한다.

朴全圭, 「Herakleitos의 Logos에 관한 해석」, 1966.

임종규, 「플라톤의 국가 편에 나타난 Idea론」, 1966.

李昌大,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에서 있어서 새로운 존재론의 전개」, 1967.

李泰秀, 「고대 원자론의 인식 문제에 대한 고찰」, 1969.

金完洙,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에 전개된 인식의 문제」, 1970.

尹九炳,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에 있어서 원자의 자유 운동의 문제」, 1972.

金南斗,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편 연구」, 1973.

南京熙, 「플라톤의 파이돈 편에 나타난 영혼의 문제」, 1974.

奇宗錫, 「플라톤에서의 인식의 문제- 에우티프론 편과 메논 편에서」, 1975.

梁文欽,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편 연구」, 1975.

朴喜永,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 연구」, 1976.

朴洪太,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 연구」, 1979.

李政浩,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에 관한 연구」, 1980.

필자는 앞으로 제 2부에서는 故 朴洪奎 선생에 의한 고대 철학의 수용을, 제 3부에서는 趙要翰 선생에 의한 수용을, 제 4부에서는 朴琮炫 교수에 의한 수용을, 제 5부에서는 수용의 전반적 평가와 전망에 관해

쓰고자 한다.

## II

박 선생은 서양 철학을 연구하되 단순히 어떤 철학자의 사상을 검토하거나 철학적 작품을 분석하는 것에 결코 머물지 않았다. 그는 서양 철학의 본질을 무엇인지, 서양 철학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나아가 진정한 철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였다. 그의 사색의 범위에 관해 다음의 증언이 있다.

“… 박홍규 선생의 논문과 강의는 희랍 철학과 프랑스 철학을 중심으로, 특히 플라톤 철학과 베르그손 철학에 대한 깊은 천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존재와 무 그리고 존재와 운동이라는 대립 개념들을 축으로 삼오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선생의 사유 세계가 이 두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초기 자연 철학자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루크레티우스를 포함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초기 교부철학과 전성기 스콜라 철학, 테카르트와 콩트로 이어지는 프랑스 철학, 그리고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나 막스 셀러 같은 실재론 경향의 독일 철학자들이 선생의 관심 분야였다. 더 나아가 선생은 오랜 기간 동안 피아제나 정신 분석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서적들을 강독했으며, 탄허 스님과 더불어 불교의 구사론(俱舍論)이나 화엄경 계통의 책들을 읽었다. 또한 선생은 인류학이나 생물학, 민족학, 심리학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 섭렵을 계속하였다. 선생은 학문적 사유란 인간 사유와 삶의 세계 전체 중 부문에 불과하며 원시 사유와 아동 사유, 종교적 믿음의 세계 등 학문 세계를 넘어서는 보다 방대한 사유세계가 있음을 항상 이야기하였다.… 그가 근대 이후의 철학 가운데서 특히 프랑스 철학에 경도했던 것도 아마 프랑스 철학이 지닌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성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실증과학의 결과를 주목하고 수용하면서도 다시 세계 전체를 안목에 두고 그것을 위치지우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프랑스 철학의 모습에서 이론적인 것과 실증적인 것의 바람직한 긴장과 균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곤 했다.”<sup>1)</sup>

1) 「『박홍규 전집』을 발간하며」, 『박홍규 전집』 1권, 1995년, 민음사 6-7면.

서양 철학에 대한 박 선생의 견해를 잠시 들어보자.

“… 진정한 철학이 좁은 강단에서 구체적 현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철학은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는 물론이려니와 근대의 획기적인 철학가들인 데카르트, 베르그손, 니체, 마르크스, 로크, 흄 등은 강단 철학자가 아니었다. … 모든 사람의 현실적인 생활의 저변에서 제기된 철학의 문제만이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철학이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또 모든 시대의 속으로 파고 들어가 연결을 지어 주어야 한다. 서양의 철학적 사고의 특징은 추상적인 체계로 상승한 후 다시 구체적인 지금, 여기로 내려와서 철학하는 데 있는 것이다. 가령 플라톤의 대화를 보면 이것을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론적인 공간에서 성립하는 철학적 사고를 탐구하는 것만이 서양의 철학적 사고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다. 발생론적 방법은 논리적인 방법과 쌍벽을 이루는 서양 철학의 특성이다. 발생론적 방법은 개체 발생론적이거나, 계통 발생론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간에 참으로 인간의 철학적 사고의 혼실태를 밝혀주는 것이다. …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철학적 사고는 인간의 철학적 사고 능력의 일정한 능력을 표시하므로, 철학사는 철학적 사고의 발달과 후퇴의 그 래프인 것이다. 철학도 인간 지능의 일부분이며, 인류문화의 진보의 역사는 지능 발달의 역사인데 서양 철학의 기본적 성격은 끊임없이 전진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시대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철학적 사상이 창조된다. 서양 철학은 인간의 철학적 사고를 학으로 정돈함으로써 다른 모든 철학적 사고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원시적 사고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철학적 사고의 발달의 극치까지 상승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철학적 사고의 발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면서 다른 철학적 사고의 발달의 기준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원칙적인 것에 불과하며 서양 철학의 비약성과 역사적 우연성으로 인하여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시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서구의 철학적 사상이 어떻

---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박 선생의 논문들은 상기 『박홍규 전집』 중 1권 『회립 철학 논고』에 실려있는 것들이다. 면수는 이 책의 것이다.

게 태어났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sup>2)</sup>

박 선생은 위의 글에서 얼마간 엿볼 수 있듯이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사이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대립쌍(對立雙)의 주제는 그리스의 사상의 산실 또는 보고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데, ‘시간’과 ‘공간’도 ‘존재’와 ‘무’ 또는 ‘하나’와 ‘여럿’처럼 그리스 철학자로 하여금 깊은 사색을 강요하였던 문제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위의 글에서 박 선생은 특히 ‘이론적 공간’의 문제과 ‘시간’의 문제를 대립시키면서 서양 철학의 두 경향을 시사하려고 한다. 그가 보기에 역사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언제나 전제되고 있는 시간을 배제하고 이론적 또는 논리적 공간 속에서만 체계화되는 철학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박 선생은 공간적 사고와 시간적 사고가 플라톤의 철학에서 전형적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는데, 박 선생 자신도 시간축과 공간축이 만남의 가능성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를 대해, 앞으로 얼마간 이에 대해 논의가 있겠지만, 끊임없이 사색하였다.

앞으로 박 선생의 글이 여러번 인용될 것인데, 그의 글을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의 어려움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낱말들이 정의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다의적인 낱말들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박 선생이 고전 그리스의 사상이라고 소개하거나 주장할 때에도 그 출전이 어디인지를 세심하고 정확히 밝히려는 노력에는 소홀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고전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둔 것들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아마 이런 현상은 그리스 사상에 대한 박 선생 자신의 고유한 이해 방식의 표출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학문은 진상(眞相)을 밝힘을 목적으로 하며, 형이상학은 만유의 진상을 밝힘을 그 소임으로 삼는다. … 그러나 진상을 의미하는 희랍어 aletheia는 은폐되어 있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상 개념

---

2) 『서양 고중세 철학사 개관』, 203–204면.

의 탐구의 지침이 된다. … 다(多)로 성립하는 현실적인 자연의 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던져진 □이것은 무엇이냐?>는 물음도 비은폐성의 지침하에 해명될 수 있다.”<sup>3)</sup>는 박 선생의 언급 속에는 학문이 그리스의 정신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이 시사되어 있다. 진리의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비은폐성(非隱蔽性)은 존재론적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타자(他者)들과의 관계에 의한 은폐성의 극복이 과제라고 박 선생은 생각한다. 요컨대 은폐는 타자들에 의한 것이며, 타자성이 제거될 때 일자성(一者性)으로서의 진상이 드러나리라는 것이다. 일자성(一者性)과 타자성(他者性)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함은 결국 파르메니데스의 엘레아 학파의 사상이 근본적 사상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선생은 문제의 타자 속에 “시간, 공간, 관점” 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주관이나 언어 및 모든 인위적인 것”<sup>4)</sup>을 포함시킴으로써 파르메니데스처럼 진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간성과 공간성의 인정은 (자기) 동일성이 문제되는 곳에서 비로소 허용된다. 박 선생은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의의를 그의 모든 담화, 강의, 논문을 통해 강조하며, 고대 철학을 포함하는 형이상학적 논의에서 언제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존재와 무를 기본적인 것으로 다루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을 기본틀로 삼으면서 박 선생은 동일률이 아니라 모순률이 더 기본적인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존재이고 무는 무이므로 무는 없어지고 다만 존재만 남는다고 말한다. 곧 일자성(一者性)은 무에 대한 모순 때문에 성립하는 존재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모순률을 따르면 존재하는 일자만 남고 존재 속에 다와 운동은 없다.”<sup>5)</sup> “그러나 … 다와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옴으로써

3) 『베르그손에 있어서의 근원적 자유』, 183면.

4) 『희랍 철학 소고』, 39면.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구분은 객관적 진리의 파악의 첫걸음이다(같은 논문, 특히 23-26면).

5) 같은 논문, 32면. 존재(存在)와 무(無)에 관한 박 선생의 논지는 「『유티데모스』편에 대한 분석」, 120-122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로 성립하는 기하학의 성립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의 순수한 일자는 모순률을 따르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성립하는 일자는 동일률을 따른다.”<sup>6)</sup> 박 선생은 모순률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전자를 후자보다 앞선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점은 박 선생이 보는 그리스의 사상의 이해에 필수적인 것이다.

박 선생에 의하면 “모순률을 따르는 일자는 홀로 있으므로 타자(他者)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을 오직 자기를 따를 따름이다. 그것의 이러한 성격은 자체성(kath' hauto)이다.”<sup>7)</sup> 그리고, 모순률에 따르는, 그래서 타자와 관계없는 ‘자체적인’ 것말고, 타자와 관계맺는 ‘동일적인’ 것도 인정된다. 나아가, ‘운동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박 선생의 (그리스의 사상을 보는) 기본 시각은 자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일성, 그리고 (경험 세계의) 운동성으로 하강하는 것이다: “자체성, 자기동일성, 운동의 과정은 연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자체성은 반드시 자기동일성을 거쳐서 운동의 과정으로 옮겨질 수 있다. 자체성, 자기 동일성, 운동 과정의 순서는 타자성의 연속적 증가를 뜻한다.”<sup>8)</sup>

이 셋의 관계에 대한 박 선생의 사상을 고찰하기에 앞서 형이상학적 진리에의 도달에 소크라테스-플라톤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에서 이미 소개된 “... 현실적인 자연의 진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모든 사물에 대하여 던져진 <이것은 무엇이나?>는 물음도 비은폐성의 지침하에 해명될 수 있다” 것에서 발견된다. 위의 철학자들은 구체적인 ‘이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람’, ‘탁월성’, ‘삼각형’ 같은 보편적인 것에 관해 ‘x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따라서 이 물음은 이들의 철학에서는 본질에 대한 물음이 된다. 플라톤은 운동하고 있는 감각적인 것들과 연관해서 뿐만 아니라 순수한 형상들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이런 물음을 던졌다. ‘형

6) 『회립 철학 소고』, 32면.

7) 같은 논문, 32-33면.

8) 같은 논문, 34면.

상'은 문맥에 따라 자체적인 것과 동일한 것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물음 방식은 위의 셋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전제한다.

박 선생은 형이상학적 주제인 자체성, 동일성 및 운동성에 관해 오래 동안 깊은 사색을 하였다. 그는 이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가능한 한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그의 사상이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어려움은 부분적으로는 특히 플라톤 사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문제삼고자 하는 저 형이상학적 주제는 이데아론과 유클리드 기하학과 연관된 것인데, 이들은 박 선생이 보기에 바로 플라톤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이제 저 주제에 대한 박 선생의 사색의 일부를 검토해 보자.

1) “타자 없이 성립하는 자체적 존재는 반복과 보존을 넘어서고 일자를 타자로 해체하는 흐름은 반복과 보존도 해체한다. 자체적 일자는 완전한 일자이다. 그러나 자기 동일적 일자는 타자에 접촉되면서 성립 하므로 그만큼 불완전한 일자이다. 따라서 자기 동일자는 자체적 일자가 지닌 일자성의 일부분만을 지닌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를 연속적으로 타자성으로 해체하는 운동은 자기 동일자의 일자성의 일부분만을 지닌다. 일자성은 존재의 특성이므로 일자성의 관계와 비례하여 존재성에 있어서도 자기 동일적 존재는 자체적 존재의 존재성의 일부분만을 지니며 일자를 타자로 해체하는 흐름은 자기 동일적 존재의 일부분만을 지닌다. 그리고 일자를 타자성에 해체하는 영점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완전한 영점에서 일자는 완전히 타자성으로 해체되고 무규정성(無規定性)만이 남는다. 무규정성과 타자성은 다같이 동시에 존재도 무도 아님의 특성이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자기 동일성의 운동의 과정은 자체적 존재가 타자와 관계를 맺은 결과이다. 그런데 타자성은 동시에 존재도 무도 아니므로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성, 자기 동일성, 운동의 과정은 연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자체성은 반

---

9) 『서양 고중에 철학사 개관』, 205-206면을 참고할 것.

드시 자기 동일성을 거쳐서 운동의 과정으로 옮겨질 수 있다. 자체성, 자기 동일성, 운동과정의 순서는 타자성의 연속적인 증가를 뜻한다.”<sup>10)</sup>

2) “유크릿 기하학은 공간 형태에 관한 학문이다. 공간에는 여기저기 사물이 존재한다. 공간은 공존하는 사물이 빠져나간 나머지의 연속성이며 일종의 결핍이다… 즉 유크리드 기하학적 공간에서는 무수히 많은 위치에 무수히 많은 동일한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삼각형들이 공간 이동을 하여 위치를 옮긴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동일한 삼각형으로 있다. 그러므로 위치를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공간 이동을 하여 합동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하나의 삼각형은 연장성(延長性)이 빠진 공간에서 유별된 종으로서의 삼각형이며 측량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삼각형에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삼각형에만 고유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은 측량에 의거하지 않고 직각 삼각형에만 내포되어 있는 규정, 곧 종으로서의 직각 삼각형의 정의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정의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증명은 근거와 결과가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통일된 전체로서 한번에 직관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곧 염밀한 논증의 성립은 도형이 합동이 되어 하나가 되고 일의적인 정의가 내려질 수 있음에 기인한다.”<sup>11)</sup>

3) “무에 대해서 모순된 일자인 존재와 동일성을 지닌 존재 그리고 운동- 이 셋의 순서는 순수한 일자인 존재가 타자성과 맺는 관계의 증가를 뜻하며, 순수한 일자인 존재에서 운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자기 동일성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커다란 의미를 내포한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공간에서 반복되거나, 시간에서 보존되어 동일성을 지니는 경우에 그 대상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적 대상처럼 순수한 공간에서 유별되어 종으로 단일화될 수 있지만, 비록 대상이 그

10) 『희랍 철학 소고』, 34면.

11) 같은 논문, 31-32면.

와 같이 자기동일성을 지니지 않고 운동의 과정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 운동의 저 편에 동일성에 의거한 존재의 영역이 있고 이 영역에 있는 것이 순수한 공간에서 종으로 유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리하여 우리가 직접 부딛치는 만유(萬有)가 동일성을 지니고 있든, 그렇지 않고 다만 운동과정으로 있든, 만유의 내용들이 순수한 공간에서 하나의 종으로 각각 유별되어 단일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단일화된 종에 대하여 그것이 일자인 까닭에 지닌 규정이 탐구되어 일의적인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면 이 정의가 토대가 되어 이론적 학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多)와 운동이 있는 만유에 대해 유크리드 기하학에 못지않게 엄밀한 이론적 학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sup>12)</sup>

자체성, 자기 동일성 및 운동성은 일자적인 것이 “타자성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하강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각성(三角性)이나 완전한 삼각형은 공간적으로 여럿이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즉, 반복성이 없으며), 또 시간적으로 보존되는 차원의 것도 아니다. 반면에, 유클리드 기하학적 공간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복수의 삼각형들이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도 보존되며, 나아가, 운동하는 세계에서 주어지는 삼각형들은 정확한 반복이나 자기보존마저 불가능하다. 이런 성격의 하강이 가능한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적 공간은 순수한 것이지만,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공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박 선생의 논의는 운동이 마치 동일성 아래의 단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도형들 사이의 합동이 성립하며(:둘째 인용문), 합동은 (질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운동을 함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일한 것으로서 합동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존됨을 함축할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유클리드 공간에서 인정되는 공간 이동에 의한 합동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합동’은 적어도 (기대되고 있었던) 순수한

12) 같은 논문, 36-37면.

13) “반복과 보존은 자기 동일성의 두 측면”이다: 같은 논문, 34면.

기하학적 의미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첫번째 인용문 속의 “위치를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공간이동을 하여 합동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하나의 삼각형은 연장성(延長性)이 빠진 공간에서 유별된 종으로의 삼각형”이라는 언급에서 확인된다. 문제의 합동은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이 공간 이동을 하여 정의(定義)의 대상인 단일한 질적(質的)인 삼각형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하학적 의미의 것은 아닐 것이다.

박 선생의 논의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허용되는 운동은 결코 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도형들이 합동하기 위해 운동하면서도 (운동으로 인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남아 “반복과 보존”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파르메니데스가 존재하는 일자에 운동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려고 했던 것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하면 일자적인 것은 결국 엄격한 의미의 일자로 그대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논증적 학문의 대상인 기하학적 공간에 허용될 수 있는 운동과 관련된 방금 제기된 문제는 현대적 표현을 빌리면 “변형(變形)없는 운동”(motion without deformation)<sup>14)</sup>의 가능성 여부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5)</sup>

박 선생에 의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적 또는 순수한 공간과 이 공간에서의 합동 가능성은, 형상들의 존재와 함께, 모든 학적 인식의 가능성 을 위한 기초 또는 모형이 된다. 이를 보이는 것이 세번째 인용문이다. “다(多)와 운동이 있는 만유에 대해 유클리드 기하학에 못지 않게 엄밀한 이론적 학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순수

14) T. Heath, *The Thirteen Books of Euclid's Elements*, second edition, vol. 1, Dover Publications, 1956, 226-228면.

15) 실제로 유클리드 자신도 합동의 공리(axiom of congruence)로 여겨질 수 있는 네번째 공통 원리(Common Notion)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기를 꺼렸다는 것을 참고로 지적할 수 있으며(T. Heath, 같은 책, 225면), 대상들의 공간적 운동을 가정함이 없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인정하는 합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같은 책, 227면).

한 공간이다. 인과율과 관련하여 박 선생은 “인과율은 동일한 원인이 있으면 동일한 결과가 있음을 말한다… 즉 인과율은 반복되는 운동을 단절하여 원인과 결과로 나누고 그것의 합동성을 규정한다”<sup>16)</sup>고 말한다. 생물학과 관련하여 “생명체가 지니는 성질이나 기능 가운데 어디서나 반복되고 언제든지 보존되는 것만이 이론적 생물학의 대상이 된다.”<sup>17)</sup> 이론적 학의 가능성이 동일한 것의 인정과 더불어 시작한다는 박 선생의 논지는 확실히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선 것이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합동성’이 인정되는 데서 알 수 있듯 박 선생은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유클리드 기하학적 공간을 인정하거나 이 공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관계들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선생의 이런 논의는 기하학적 인식을 인식의 전형으로 보고 이를 통해 여타 모든 인식들을 조명해 보려는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데서 나온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 III

우리는 이제 고전 철학이 朴洪奎 선생의 경우와는 아주 다른 시각에서 수용되고 있는 경우를 趙要翰 선생에게서 발견한다. 趙 선생은 70년대에 들어와서 숭전대 문리대 대학장, 한국 철학회 부회장, 한국 미학회 부회장, 철학 연구회 회장의 일을 맡기도 하며, 1980년부터 몇년 동안 군부독재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해직의 불운을 겪게 된다.

앞서 지적된 대로 朴 선생은 자체성-동일성-운동성과 연관된 형이 상학적 문제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이 관심은 세계의 이해에 필요한 존재론적 원리에의 관심을 의미하고 있었다. 박 선생은 신화적인 것이 철학의 탄생에 미친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기는 하

16) 『희랍 철학 소고』, 37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17) 같은 논문, 37면.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지만 철학 자체의 본질적 또는 적극적인 요소로 보는 것을 꺼린다.<sup>18)</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趙 선생은 신화와 철학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일찍이 박종홍 교수 지도 아래 쓴 1957년의 석사학위 논문 『희랍 哲學의起源에 있어서의 東方의 영향』에서 보이고 있다. 이후 조 선생은 신화와 철학의 연관성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희랍 자연 철학자들의 神觀」(1963년), 「神話의 의미」(1979년)가 있다. 조 선생은 (東西의) 전통적인 (古典) 철학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증명을 위주로 하는 이론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같은 동방 사색의 특색으로 “본래의 철학은 서양에서 시작되었다”는 Hegel 식의 표현이 이때껏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철학이란 본래로 무엇을 뜻하는가?”하는 점이다. 고대의 있어서 philosophchein 또는 philosophia란 “智慧의 희구”라는 막연한 의미밖에 없었다. 즉 희랍의 초기에는 고대 동방에서도 사용되었던 sophia 또는 sophistes라는 용어가 통용되었다가 Herakleitos에서 처음으로 philosophos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그는 “많은 것을 잘 배워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렸고, Platon은 Sokrates의 입을 통하여 “죽음의 연습” 또는 “신에게만 해당하는 지혜”라고 말하였다. Aristoteles에서는 그것은 “모든 존재자에 대한 원리”이어서 수학, 자연학, 윤리학, 정치학이 다 거기에 속하는 학일반을 뜻하였는데, 이론적인 철학(수학, 자연학, 형이상학) 중 형이상학은 제일 철학이었다. 이렇게 보면 제일 철학만이 철학이요, 엄밀성과 과학성에 의하지 않으면 철학이 아니라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Stoa 철학에서는 Cicero의 이른바 ars vitae(처세술)이 곧 철학이었다. Sextus Empiricus에 의하면 ”철학은 지혜의 추구인데, 그 지혜는 신적 또는 인간적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실존철학자들의 〈非論理〉나 〈神秘〉의 개념을 첨가하지 않고도, 이상의 고대 철학자들의 정의에 의해 서만으로도 고대 동방의 사색이 철학사에서 제거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sup>19)</sup>

18) 이 점에 대해서는 『서양 고중세 철학사 개관』을 참고할 것.

엄밀성과 과학성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전통적 철학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조 선생의 시각은 고대 철학의 연구에서 신화적인 것의 가치를 중시하는 데로 이어진다. 이 점은 논문 “희랍 자연철학자들의 神觀”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는 “우리는 희랍철학자들이 탈 신화적 입장에서 철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神性의 문제는 거의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들에 즉하여 올바로 고찰하면 신성 이야말로 그들의 중심 문제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 존재의 물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에 대한 조 선생의 견해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의 철학을 바라보는 박 선생과 조 선생의 견해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한 하이데거(Heidegger)와 예거(Jaeger)의 견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작성된 논문 “희랍 자연철학자들의 神觀”에서 조 선생은 말한다.

“이 두 철학자[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때까지 보통 존재의 固定과 生成, 一과 多라는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그런 상반된 주장이 그들 속에 없는 것은 아니라, 두 사람은 속절없는 現象界를 깨뚫는 “감추어져 있지 않는” 真理와 “共通된” 神的 nomos를 찾았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다.”<sup>21)</sup>

박 선생은 이미 본 대로 특히 파르메니데스의 아래의 그리스 철학의 중심 과제를 조 선생이 시사하는 것처럼 “존재의 固定과 生成, 一과 多”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 선생은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 점은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을 해석함에서 설명하게 드러난다. 조 선생은 파르메

19) 『희랍 철학의 起源에 있어서의 東方의 영향』, 95면.

20) 『희랍 자연철학자들의 神觀』, 『朴鍾鴻 박사 還歷 기념 논문집』, 279면.

21) 같은 논문, 292면.

니데스의 첫번째 단편을 해석하면서 다음처럼 말한다.

“知者(….)를 태운 마차는 Helios의 처녀들의 인도에 따라 한女神(daiomones)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真理와 假象과의 두 識見을 듣는다. 詩人이 더듬는 길은 “인간의 좁은 길과는 다른 길”이다. 따라서 어떤 유한한 정신도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다. 自力으로 발견하는 길이 아니라 啓示로서 보여주는 세계이다. 빛의 세계에의 신비적 移行은 참된 종교적 체험이다. 즉 제한된 인간에게 감추어진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新生의 체험이기도 하다. 이것은 신비적인 종교만이 보여주는 것이다. Parmenides는 南이태리의 Orpheus 종교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 真理와 假象이 밝혀지는 길(hodos)의 길잡이는 法의 여신(themis)과 正義의 여신(dike)이다. 철학자가 사랑으로 삼는 인식이란 신성한 빛의 선물이고, 그것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 序詩는 밝혀주고 있다.”<sup>22)</sup>

나아가, 조 선생은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신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처럼 요약한다.

“神의인 것’을 Parmenides는 “존재”(on)라는 말로, Herakleitos는 “logos”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선 인간은 존재를 “啓示받고” logos를 “듣는” 존재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인간은 이리저리 해매는 假象의 길에서 벗어나 “存在의 길”을 선택하여야 하고(Parmenides), logos의 부름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Herakleitos)하는 것이다.”<sup>23)</sup>

조 선생의 보는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진정한 존재의 세계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순수한 이성으로 열어지는 것이 아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마차를 타고 하늘에로 올라가며 여신이 들려주는 진리와 가상에 대해 듣는 것은 조 선생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신비적 移行”이며 “참

22) 같은 논문, 203면.

23) 같은 논문, 308-309면.

된 종교적 체험”이며 “新生의 체험”이다. 진리의 인식은 따라서 인간의 “유한한 정신”인 이성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직 신의 계시(啓示)를 통해서 가능할 뿐이다. 진리는 그래서 신성한 빛의 선물이며, 인간 정신이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에 대한 박홍규 선생의 논의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조 선생은 같은 논문에서 자연철학자들의 신관(神觀)을 둘로 요약한다. 하나는 “自然은 보이는 樣相으로는 모순대립을 나타내지만 이 대립은 自然의 神性에 있어서 統一된다”<sup>24)</sup>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自然은 조화된 完全體이기 때문에 이것을 視覺化하면 중심에서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등근 球體라고 표현할 수 있다”<sup>25)</sup>는 것이다. 우리는 두번째 요약에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요약에는 특히 파르메니데스의 사상과 연관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컨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과 관련하여 “자연은 낮과 밤, 겨울과 여름, 전쟁과 평화, … 이지만, 신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전체의 흐름속에 해소된다”<sup>26)</sup>는 주장은 첫 번째 요약과 일치될 수 있겠지만, 파르메니데스에 있어서 신에 해당하는 일자는 어떤 많음[多]의 요소도 배제되는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요약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요컨대, 조 선생은 위의 요약에서 “대립은 자연의 신성에 있어서 통일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파르메니데스가 내세운 신성(神性) 속에는 통일되어야 하는 어떤 대립도 없다.

조 선생은 그리스 사상의 이해에 신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신화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한 현대의 학자들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 결실이 1979년의 논문 「神話의 意味」이다. 여기서 그는 플라톤의 신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J.

24) 같은 논문, 309면.

25) 같은 논문, 309면.

26) 같은 논문, 309면. 그러나 ‘해소된다’는 표현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

Stewart와 E. Dodds의 견해를 대체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한다. 그는 전자로부터 “플라톤에 있어 신화는 그 戲曲 形式에 첨가된 장식품이 아니라 그것의 유기적인 부분”<sup>27)</sup>이라는 논점을 수용한다. “활발한 토론이 잠시 침묵을 지킬 때, 또한 철학적 희곡의 변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가는 아슬아슬한 경지에서 새롭고도 기발한 계시와도 같이 신화가 폭발하여 나온다. 신화로 말미암아 주제토의가 일상적인 경험에서 넓은 다른 세계로 밀려들어간다.”<sup>28)</sup> 신화는 “플라톤의 철학형태의 본질적 요소이고, 그의 철학은 이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sup>29)</sup> 조 선생은 종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개혁되더라도 이전의 종교는 상속되며, 그래서 설사 새 것과 옛 것 사이에 논리적으로 조화가 되지 않는 점들이 있더라도 양자가 공존적 혼합 상태에 들어간다는 E. Dodds의 견해를 취한다. 이에 따라, 반신화(反神話)의 깃발을 내건 플라톤이지만 “자기 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설명을 신화에 의해 설명한다”<sup>30)</sup>고 여기면서 예컨대 상기설, 동굴의 비유 등을 증거로 대고 있다. 신화에 대한 조 선생의 신념은 아마도 “哲學이 폭넓게 세계와 인간과 神에 대하여 사색하려면 ‘상징의 세계’를 통찰해야 한다는 것”,<sup>31)</sup> 나아가, 철학이 “논리적 방법만을 사용하면서 그것만이 철학적 방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야스페스의[가 말한] ‘과학의 미신’이”<sup>32)</sup>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직하다.

조 선생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전 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1974년 崇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Aristoteles 哲學에 대한 解釋上의 問題」이다. 이 논문의 첫째 논제는 ‘辨證法에 대한 Platon과 Aristoteles의 見解 差異’이고, 둘째 논제는 ‘形而上學의 成立과 그 性格 問題’이며, 셋째 논제는 ‘時間과 精神의 測定問題’이고, 넷

27) 「신화의 의미」, 『曉園 이석희박사환력기념논총』, 72면.

28) 같은 논문, 72면.

29) 같은 논문, 72-73면.

30) 같은 논문, 20면

31) 같은 논문, 21면.

32) 같은 논문, 21면.

째 논제는 ‘Katharsis의 性格에 대한 是非’이다. 각 논제는 이미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새롭게 엮은 것이다.

논리적 방법이 철학적 방법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철학적 활동에 필요하다는 조 선생의 신념은 필자가 보기에는 위의 학위 논문 속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길’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길’에 대응하는 그리스의 낱말은 ‘*hodos*’이다. 그리고 이 낱말은 파르메니데스의 서시(序詩)를 분석하는 조 선생의 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천상(天上)에 오르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길은 (조 선생이 분석하는) 파르메니데스의 서시(序詩)가 시사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구원에의 길이었다. 필자는 조 선생의 논문들을 읽으면서 철학은 어떤 종류의 ‘초월적인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조 선생의 믿음이라는 인상을 받는데, ‘길’은 이 경우 초월적인 것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것이다. 조 선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관한 학위 논문에서 특히 첫째 논제와 둘째 논제에서 ‘길’과 관련된 그리스 낱말들을 여러 방식으로 다룬다. ‘*hodos*’, ‘*methodos*’, ‘*dieksodos*’, ‘*poros*’, ‘*aporia*’, ‘*euporia*’ 등이 그런 낱말들인데, 이들은 모두 비경험적인 진리들의 인식과 관련되어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논제에서는 ‘길’에 관한 파르메니데스의 시가 인용되고 있다. 철학자로서의 조 선생의 관심은 어떤 초월적인 것에 이르는 ‘길’들을 찾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듈다.<sup>33)</sup>

## IV

---

33) 조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그에게 ‘신앙’과 ‘철학’의 문제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되고 있다: 金炳宇, 「인간 조요한 교수와 그의 학문」, 『희랍철학 연구』(1988, 종로서적: 조요한교수학갑기념논문집). 신학의 의의를 찾는 것도 그의 신앙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학위 논문의 마지막 논제는 조 선생의 예술 철학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의 예술 철학에의 관심은 김병우 님의 증언에 의하면 김환기 화백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60-80년 사이에, 특히 70년-80년 사이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분은 성균관 대교 철학과의 朴琮炫 교수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朴鍾鴻 교수 지도 아래 「플라톤 사상의 출발점과 귀착점」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썼다. 70-80년 사이에 그가 가장 정성들여 사색한 분야는 플라톤 철학에 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과 연관된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의 测定術과 만듦’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를 주제로 한 다음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히랍 철학을 통해 본 만듦의 문제」(1977년), 「플라톤에 있어서의 만듦의 문제」(1977년), 「로고스와 히랍 철학」(1980년), 「플라톤의 测定術(metretikē)」(1980년).<sup>34)</sup> 그러므로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 사상을 수용하고 있는지 얼마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논문들을 통해 소크라테스-플라톤에게서 발견하는 박 교수의 기본적 문제 의식은 (윤리적) ‘실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1) “그들[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잘 사는 것“(euprattein)의 의미를 캐물음(exetasis)을 통해 그 원뜻이 사람으로서의 훌륭한 행위(praxis) 내지 처신임을 우선 밝히고, 그 다음으로 사람으로서의 훌륭한 행위 내지 처신은 결국 사람이 슬기롭게 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참으로 훌륭하게 사는 것, 즉 진정한 행복 또한 거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생각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aretē

34) 박 선생은 70년부터 81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을 묶어 『希臘思想의 理解』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종로서적, 1982년). 앞으로 소개되는 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박 교수는 히랍 사상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논문들—예컨대, 「히랍인들의 평등 의식」(1974), 「히랍사상의 특징적 고찰」(1975) 등—외에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과 관련된 다른 여러 주제들—예컨대, 「플라톤에 있어서의 에로스(Eros)에 관하여」(1974), 「플라톤의 형상 이론의 기본구조에 관한 고찰」(1979)—에 대해서도 논문을 쓰고 있다. 「히랍 비극의 특징과 그 철학적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1976년)도 눈에 띈다. 70-80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여기에 수록된 것들은 모두 11편이다.

(goodness, excellence)는 *epistēmē(knowledge)*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잘 알려진 주장이다. 플라톤의 철학은 간단히 말해서, 소크라테스의 이 주장을 이론적으로 천명하고, 체계화시키는 데서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sup>35)</sup>

2) “플라톤은 『법률』(*Nomoi*, 691c)에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적도(適度, *to metrion*)를 무시하고서 보다 작은 것에 힘에 부치게 큰 것을 주게 된다면, 가령 배에 둑을 달 때라든가, 몸에 영양을 공급할 때, 사람에게 통치권을 부여할 때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모든 것들을 뒤엎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적도(*to metrion*)는 가령 척도(*to metron*)로 젤(*metrein*) 때 딱 들어맞는 상태(*to symmetron*)이다.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도 이 적도가 이뤄질 때가 가장 “훌륭한 행위” 내지 “처신”이요, 이것이 바로 “잘 됨” 내지 “잘 지냄”, 즉 “잘 삶”이며, “훌륭히 삶”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eupraxia’나 ‘eupragia’라는 일상어에 대한 플라톤의 풀이다. 다시 말하면 “훌륭히 행함(euprattein)”이 곧 “행복함”이라고 보는 플라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훌륭한 행위(praxis)가 결국 ‘praxis’의 적도(*to metrion*)를 읽어내는 측정의 기술(*technē*), 즉 측정술(*metrētikē, hē metrētikē technē, the art of measurement*)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플라톤의 생각에 접하게 된다.”<sup>36)</sup>

3) “그런데 인간에 의한 만듦에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하는, 즉 어떤 여건(ta hyparchonta) 아래서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만듦에는 도구적 제작을 비롯하여 인격의 형성,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의 것들이 있다. 이 논문의 의도는 이러한 몇 가지의 인간의 만듦에 관한 플라톤의 생각을, 비록 윤곽에서나마,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

35) 「플라톤의 측정술」, 227면.

36) 같은 논문, 228~229면.

려는 것이다.”<sup>37)</sup>

우리는 위에서 박 교수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적 관심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praxis적 측면, 즉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형성과 삶의 실제적 공간인 공동체 내지 국가의 창조적인 구성”<sup>38)</sup>에 있는 것으로 읽고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박 교수의 관심이, 세번째 인용문이 시사하고 있듯,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적도에 따른 인격적 형성과 국가의 형성에 이르게 되는지를 박 교수 자신의 표현대로 “윤곽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다. 필자는 여기서 적도에 따른 인격적 형성과 국가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내지 모형적 근거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를 박 교수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얼마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1977년의 그의 논문 “플라톤에 있어서의 만듦(창조)의 문제”를 주로 참고하겠다.

인격이나 국가의 만듦에 모형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박 교수는 『티마이오스』편의 창조론에서 찾는다.<sup>39)</sup> 따라서 그가 『티마이오스』편을 필요한 만큼 자세히 논의하고자 함은 당연하다. 특히 그는 대화술(dialektikē)과 측정술(metrētikē)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형상 인식(形相認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보여주는 것이 플라톤에 있어서의 dialektikē이다. 그에게 있어서 dialektikē는 기본적으로 사유술(思惟術) 내지 직관술인 동시에 전체적인 사유 체계이다.”<sup>40)</sup> 대화술(dialektikē)과 측정술 사이의 관계를 그는 다음과처럼 언급한다.

“그런데 플라톤은 후기 대화편들에서 *koinōnia*나 *methexis*를 말하면서 이를 곧잘 *mixis* 또는 *symmixis*(混和)라는 말로도 표

37) 「플라톤에 있어서의 만듦(창조)의 문제」, 154면.

38) 같은 논문, 172면.

39) 이 대화편에서 찾을 필요성에 대한 박 교수의 견지는 같은 논문, 186-187면을 참고할 것.

40) 같은 논문, 178면.

현한다. mixis 또는 symmixis란 이데아들끼리의 “섞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플라톤에 있어서는 “생성된 것”(to gignomenon) 또는 “만들어진 것”(to poioumenon)이 곧 “하나의 혼화된 것”(hen ti symmisi gomenon)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데아들과 질료적인 것들의 혼화 관계를 이 용어들은 또한 나타내고 있다. 플라톤의 이러한 용어 사용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철학적 관심이 사물들과 이데아들의 관계로부터 이데아들끼리의 관계로 옮겨갔다가, 다시 이어서 더 나아가 이데아들과 생성(gensis) 및 만들내지 창조(poiēsis;dēmiourgia)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감을 확인하게 된다. … dialektikē의 본질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 이르러서이니, 그것은 dialektikē가 다름아닌 측정술(metretikē)과 궁극적으로는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이다. 곧 만들내지 창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또한 dialektikē로서, 측정술은 이의 응용술이다.”<sup>41)</sup>

이제 박 교수가 논의하는 『티마이오스』편에서의 “만듦의 이론”을 살펴보자. 그는 만듦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티마이오스』편의 관련 내용들을 1)만듦의 1차적 요인, 2)만듦의 본, 3)만듦의 부차적 요인으로서의 필연적 요소, 4)만듦의 수용자 및 그것과 만들어지는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룬다. 1)에서는 만드는 주체인 데미우르고스가 다뤄지고, 2)에서는 이데아들이 다뤄진다. 3)에서는 박 교수가 만듦의 필요 조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주어진 여건이(ta hyparchonta) (데미우르고스에게 주어진) “보조적-기여적 원인”(synaitia)<sup>42)</sup>으로 취급되면서 다뤄지고, 4)에서는 『티마이오스』에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되는 공간이 다뤄진다. 이 공간은 “철저하게 ‘아무런 모양도 없는 것’, 즉 전적으로 무규정적인 것”<sup>43)</sup>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아직 지성적 요소가 전혀 개입되고 있지 않고 있는 일종의 혼돈<sup>44)</sup>이기도 하다. 3)에서 다뤄지는

41) 같은 논문, 183~184면. 대화술과 측정술에 관해 “앞의 것이 주로 파르메니데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뒤의 것은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로고스와 희랍 철학』, 69면)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42) 같은 논문, 190면.

43) 같은 논문, 193면.

주어진 여건으로서의 여러 질(質)들과 공간은 데미우르고스가 만듦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다. 데미우르고스가 3)에서 다뤄진 “비한정적인 것”<sup>45)</sup>으로서의 주어진 것을 “한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경험적인 사물 같은 것을 만들게 하는 요소는 그 무엇보다도 “한정자의 부류에 속하는” 이데아들이다.<sup>46)</sup>

이 논의까지 한 박 교수는 마침내 측정술과 관련된 논의로 들어간다. 그는 다음처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를 개재시킴으로써(enteisa arithmon)” 대립되는 것들, 즉 비한정적인 것들이 상호대립이나 과불급의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 균형(symmetria)을 잡게 되고, 조화(sympiphōnia) 또한 이루게 된다. … 그러나 비한정자와 한정자의 혼합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무원칙한 혼합 아닌 참된 의미의 혼합, 즉 혼화(混和)로 되자면, 다시 말해서 균형잡힌 또는 조화된 만듦을 가능케 하려면, 여기에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이 측정술(metretike)이다. 더하거나 덜한 비한정자를 한정시켜서 하나의 사물을 만들려면, 그것을 만드는 자가 적어도 기준으로 삼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sup>47)</sup>

이어 박 교수는 측정술에는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

“하나는 크고 작음을 측정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비교를 통하여 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중정(中正) 내지 적도(適度, to metrion)의 창출과 관련되는(pros tēn tou metriou genesis)”<sup>48)</sup>것으로서, “중정 내지 적도(to metrion)-적절함(to prepon)-때맞음(時中, ho kairos)-마땅함(to deon) 등등의 것

44) 같은 논문, 193면.

45)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불러지는 것과 외연이 같은 것이다(같은 논문, 197면).

46) 같은 논문, 195면.

47) 같은 논문, 195-196면.

48) 『정치가』, 284d

들, 요컨대 “양극단의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 중간에 있는 것들과 관련되는 그러한 모든 기술들”을 포함하는 부류의 측정술이다. 뒤의 것은 참된 의미의 측정술이요, 앞의 것은 그렇지 못하다. … 참된 측정술과 그렇지 못한 측정술을 구분할 뿐더러, 중정 내지 적도를 창출하고, 이러한 적도-때맞음-알맞음 등에 비추어 모든 일을 헤아릴 줄 알도록 되는, 그리하여 마침내 가장 바람 직한 혼화를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다름아닌 *dialektikē*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참된 애지자의 경지이다.”<sup>49)</sup>

필자는 지금까지 박 교수의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얼마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의 긴 논문 「플라톤에 있어서의 만듦(창조)의 문제」에서 저자의 기본적인 관심은 이미 앞서 소개된 대로 인간의 “인격적 형성과 … 국가의 창조적인 구성”에 모형이 되는 것을 『티마이오스』편 속에서 만듦 또는 창조 이론을 통해 찾는 일이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얼마간 검토하고 있는 그의 논문 「플라톤에 있어서의 만듦(창조)의 문제」에서 자신의 논의가 일반적이거나 윤곽적인 것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sup>50)</sup> 그의 이 공식적 언명은 만듦 또는 창조의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위에서 소개된 다른 논문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만듦 또는 창조의 문제를 윤곽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 박 교수의 의도였다. 이런 성격의 논문의 경우 필요한 부분이 논의에서 빠졌음을 지적하는 비판이 종종 일어남을 발견하게 된다. 박 교수의 논문에서 한 예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물들의 혼화를 설명함에 『티마이오스』편의 창조자는 이미 주어진 비한정적인 세계를 한정적인 것으로 만

49) 「플라톤에 있어서의 만듦(창조)의 문제」, 196-197면. 이 두 방식의 측정술에 관한 논의도 박 교수의 다른 여러 논문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50) “… 플라톤의 생각을, 비록 윤곽에 있어서나마, 체계적으로….”(주 36을 참고할 것), “만듦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플라톤의 철학을, 비록 윤곽에 있어서나마, 전반적으로….”(같은 논문, 197면).

들기 위한 첫 단계로써 기하학적 도형들을 구성하고 있다.<sup>51)</sup> 이 도형들의 구성은 적어도 『티마이오스』편에서 만듦의 모형을 구하려고 하는 한 빼놓을 수 없는 의의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반복하는 것이지만, 비한정적인 것을 한정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측정술이라면 이 대화편에서의 우주의 한정화(限定化)는 다름아닌 기하학적 도형들의 구성으로부터 결정적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측정술에 관한 어떤 논문 속에서도 이 **기하학적 도형들의 구성과 이 기하학적 구성이 측정술에 주는 의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형 이론과 관련하여 『티마이오스』편이 문제될 때, 기하학적 도형들이 도입되는 사실은 여러 점에서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도형의 구성은 수 이론을 전제할 것이므로 창조자는 수 이론과 도형 이론(또는 기하학)에 정통한 자일 것이다. 박 교수의 지적처럼 측정술이 대화술의 응용이라면, 기하학적 도형들의 도입과 관련하여, 수 이론과 기하학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이론들은 이데아 이론 또는 대화술의 큰 틀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박 교수가 강조하는 ‘참된 측정술’의 의미는 수 이론 및 기하학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라는 물음들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인격 및 국가의 형성을 포함하는 만듦의 문제에 박 교수가 집중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것이 희랍 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만듦’과 ‘합리성’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희랍인들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이 만듦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상”<sup>52)</sup>이라고 말한다. 그의 이 논점은 여러 논문들 속에서 일관해서 주장되고 있다. 『티마이오스』편의 창조자의 경우처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근본 정신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이 논점을 희랍 비극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흥미롭게 해설하고 있다.

“최소의 것을 가지고서 최대의 것을 실현해 보이는 그러한

51) 『티마이오스』편, 53c-55c.

52) 「희랍사상의 특징적 고찰」, 304-305면.

인간을 그려 보이는 것이 비극이 참으로 의도하는 바이다. 참으로 불품없는 최소의 것, 그러한 제약성을 그 극한에 있어서 제시해 보인 것이 비극적 상황이다. 아니 애당초 비극의 상황이 빚어진 것은 인간의 제약성 때문이다. … 인간을 맨주먹의 알몸으로 노출시킨 다음, 이 상태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인간의 참된 면모를 보자는 것이 비극이 의도하는 바다. 그렇기에 희랍 비극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인간의 보편적 제약성으로서의 비극적 운명과 그걸 무릅쓰는 결단과 행위를 그려 보여 주고 있다. 적어도 희랍 비극이 인간의 행위와 그것에 선행하는 결단을 주제로 하는 한, 그것은 동시에 희랍인들의 철학적 작업이 일환이라 하겠다. 과연 인간의 행위의 문제는 소크라테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철학적 과제로 채택되었으니 말이다.”<sup>53)</sup>

## V

앞서 필자는 60-80년의 우리나라의 서양 고대 철학의 수용은 초창기로 봄이 좋을 것이라고 밀하였다. 세 분을 중심으로 서양 고대 철학의 수용사를 쓰게 된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확실히 희랍 철학의 수용이 세 학자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위의 세 학자들에 의한 고대 철학의 수용은 대체로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세한 데까지 연구가 미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연구의 초창기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 의한 연구 성과와 태도가 후진들에 의해 발전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일 것이다. 예컨대, 박홍규 선생은 그리스 사상의 이해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추상적 근본개념들을 통해 개진하면서, 이 사상들을 유클리드 기하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

---

53) 「희랍 비극의 특징과 그 철학적 의의」, 290면.

로 파악하고 있었다. 박 선생은, 앞서 논의된 대로,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리스 사상의 이해에 뿐만 아니라 학문 일반의 성립 가능성의 논의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유클리드 기하학적 순수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이 탄생 하리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공간적인 것이 우선적인 것이냐 아니면 시간적이 것이 우선적인 것이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가능한가, 그리고 가능한 것이라면 그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물음들이다. 박 선생이 보기에 철학은 이런 물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학문의 성립 가능성도 이런 물음들에 어떤 대답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박 선생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순수 공간의 문제처럼 고대 철학에서 발견될 수 있는 철학상의 영원한 주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들이 문제로서 제기되는 본래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주제들의 발전의 역사, 나아가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해답의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까지 진지하게 탐구하였다. 이런 탐구 방식은 고대 철학을 연구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철학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 방향에서 이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제 1세대 연구자들의 업적을 보다 빛나게 하는 일은 후진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자세히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업적을 계승 또는 발전시키면서 서양 고대철학을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수한 후진들의 양성이라고 전망함은 아주 자연스럽다. 이런 점에서 우수한 제자들의 양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서울대 故 朴洪奎 교수의 업적은 실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지도를 받은 일부 제자들이 70년을 전후하여 연구하리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한다. 제 1부에서 소개된 자들 가운데서 朴全圭는 프랑스에서, 李泰秀와 金南斗는 독일에서, 金完洙는 그리스에서, 南京熙는 미국에서, 朴喜永은 프랑스에서 각각 연구하게 된다. 그리고 李昌大, 尹九炳, 寄宗錫, 梁文欽은 서울대 박사과정에서 계속 박홍규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박홍규 선생의 지도를 받은 석사들은 대체로 70년대 후반부터 학술

지에 본격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 가장 왕성한 발표력을 보인 자는 李昌大 님일 것이다. 그는 「플라톤의 知覺과 psyche」(『철학논구』, 1975), 「플라톤의 二元論적 세계관과 psyche」(『철학』, 1976), 「플라톤의 존재에 관한 분석적 고찰」(『철학연구』, 1976), 「플라톤의 변증법에 관한 소고: <소피스트>편의 분석을 중심으로」(『철학연구』, 1977), 「플라톤의 Theaetetus 편 분석(I)」(『철학연구』, 1980)을 잇달아 발표한다. 그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 플라톤의 후기 사상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텍스트에 접근한다. 金完洙님은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타난 이데아 論攷」(『철학연구』, 1973), 「인식의 범주적 고찰: 플라톤의 所論을 중심으로」(『서울 教大 논문집』, 1976)를 발표한다. 아직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석사 연구자들이 계속 배출되면서 1976년 한국 철학회 산하에 ‘西洋 古代哲學 分科 委員會’가 조직되어 등록되는데(초대 회장 朴琮炫 교수), 이 학회의 이름으로 발간된 박홍규 교수 회갑 논문집 『문제를 찾아서』(종로서적, 1980년)는 고대 철학 분야 전공자들의 최초의 논문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집은 박홍규 교수 자신의 전공을 배려하여 프랑스 철학에 관한 논문도 두 편싣고 있다.) 박홍규 선생을 비롯하여 박종현, 윤구병, 김완수, 기종석, 남경희, 이창대, 양문흠, 李建源, 韓石煥 님이 기고하고 있다. 조요한 교수가 머리말을, 윤명로 교수가 박 선생의 학풍에 대해 쓰고 있다.

고대 철학 분야 연구의 실질적인 진보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학회에 조직성과 활동성을 부여하는 것과 아울러 전문 학술지를 확보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여건상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 학문의 발달이 관심갖는 층의 두터움과 관련 분야 간의 교류에 상당히 의존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고전 철학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양 철학에 좁힌다 할지라도- 공헌을 할 뿐만 아니라 관심층을 두텁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길은 고전의 번역 및 주석서의 출판일 것이다. 그러나 60-80년에는 이런 일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수한 연구자가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확보는 서양 고대 철학이라는 학문의 특색에서 볼 때 사실상 유일한 학문적 활동 공간인 대학에서 일자리를 얻을 때 현실적 의미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일부 연구자들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전임 자리를 얻는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대학이 팽창하면서 취업의 문이 넓어지고 있었다. 이 때부터 이 분야의 신진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연구와 교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게 하였다.

60-80년대의 서양 고대 철학 분야의 활동의 특색은 요컨대 이 분야에서 선구적으로 활동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에 의한 후진 양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양 고대철학이 성공적으로 수용되었다는 평가를 얻는 것은 후진들이 선배들의 뜻을 이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